

MS도 힘을 실어준 공개 SW 육성책

근 한달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황우석과 즐기세포'였다면 DC분야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철수 협박(?)과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물량 공세를 앞세운 MS의 화해 손짓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소송 취하로 분위기가 전환되는가 싶더니 공정위가 다음의 소송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심사를 마무리해 버린 거지요. MS는 이번 공정위의 판결에 불복,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결정에 앞서 한국 시장서 윈도 철수 등을 운운한 MS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MS사건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SW 육성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개SW 육성의 명분 중 하나로 시장 독점적 SW사업자의 폐해로부터 SW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요. 이에 MS를 비롯한 상업용 SW업체들은 정부의 공개SW 육성방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스티브



발머 MS CEO도 "한국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다소 우회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공개SW 육성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 MS 사건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개SW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래저래 MS에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연 말연시가 되고 있습니다. <석>

대한민국은 지금 토론 중?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전파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토론 문화' 일 것입니다. 분명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토론' 좋습니다. 수십년 동안 독재와 억압에 짓눌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속 시원히 못 해본 우리 민족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한다'는 사전적 의미에 걸맞게 이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인터넷 분야



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인터넷 산업을 둘러싼 여러 민감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토론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무선 인터넷 망 개방, 인터넷주소관리, 저작권법 개정, 인터넷 규제 문제 등 메가톤급 이슈들로 관련 업계가 무척 뜨거웠죠. 그러나 관련 토론은 활발히 벌어졌던데 반해 이를 바탕으로 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 도출은 더디기만 했던게 사실입니다. 인풋(In put)은 많은데 아웃풋(Out put)이 없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서로간 입장 차이는 2005년에 지점도록 확인했으니, 이제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일 없도록 말이지요. <수>